

전북교육감 후보자들, 사전투표와 함께 교육가족에 지지 호소

이남호 “안정·변화 동시에”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사전투표와 함께 전주시 맞춤형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전북교육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후 북일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김영식 씨와 가족 지지자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후 북일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김영식 씨와 가족,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 후 전주 맞춤형 공약 발표 전주교육지원청 에코시티 이전 추진 등

이 후보는 “전북교육에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큰일을 해낸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도덕성과 실력이 검증되고 재선거 격정 없이 전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 임자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전주시를 위한 맞춤형 교육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전주는 전북교육의 행정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 생활밀착형 교육복지를 동시에 이룰 핵심 도시”라며 “전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전북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전주 북부권 인구 증가와 생활권 변화에 맞춰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센터의 에코시티 이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덕진구 태진로에 위치한 전주교육지원청을 신도심 생활권에 맞게 재배치해 교육행정 접근성과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교육행정은 책상 위 행적이지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가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지원이어야 한다”며 “에코시티 이전을 통해 학교 지원과 학부모 상담, 지역 협력 기능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팔달로 일대에는 주민교육 스퀘어파크를 추진해 신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합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를 학생민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이용하는 생활형 공공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며 “효천지구와 팔달로를 전주형 오픈스쿨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전주를 AI·인성 창작 광역거점이자 수학·과학 특성과 교육도시로 육성하고, 전주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AI 중점 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산하 AI영재교육원 등을 기반으로 초·중학교 AI 기초교육부터 고·대 단계 심화교육, 대학·기업 연계 프로젝트 교육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에는 이미 AI 교육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며 “전북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최고 수준의 AI·수학·과학 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 AI 영재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주의 교육 현안을 단순히 학교 시설이나 시설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혁신도시, 팔달로와 구도심을 하나의 교육생태계로 연결해 행정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주는 전북교육의 얼굴”이라며 “전주의 교육행정과 교육환경, 미래교육 기반이 달라지면 전북교육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신도심은 미래교육과 생활밀착형 교육행정의 거점으로, 구도심은 공동체 회복과 교육협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전주 전체를 전북 미래교육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천호성 “현장중심으로 정상화”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박은미씨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120시간 총력 유세 돌입… 사전투표 참여 전북형 로컬푸드 학교급식 체계 구축 공약 발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사전투표를 전후에 산업현장과 도심을 돌며 강도 높은 총력 유세에 나서는 한편, 지역 생산 식자재를 활용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포심 공약에 나섰다.

천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완주와 전주 일대에서 ‘120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8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길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오전 7시 30분에는 전주 만성동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어 오전 9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천 후보는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학교급식 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포심 공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전주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교육감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교육 격차 해소와 교원회복 미래교육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전투표일인 29일에도 천 후보의 현장 행보는 이어졌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박은미 씨와 함께 투표를 마친 뒤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전

북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군산 외항로에 위치한 세아메 스틸을 찾아 출근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는 다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직업교육 강화와 지역 맞춤형 미래인재 육성 의지를 밝혔다.

오후 5시에는 전주 송천역 사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학생 중심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천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곧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교육으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 후보는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역 생산 중심으로 공급하는 전북형 로컬푸드 학교급식 체계 구축 공약도 발표했다.

현재 일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이 외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학생 건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천 후보는 “지역 생산 식자재 우선 공급 원칙”을 제도와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도내 식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3단계 공급 우선순위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친환경 인증 식자재를 최우선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도내 일반 인증 식자재를 사용하며, 이마저도 부족한 경우에만 타지역 인증 식자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 농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계약재배 확대와 급식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격 안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전교조 전북, “현장체험학습 위축시키는 처벌 구조 바꿔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사 형사처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학교안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역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이 업무상과실처사신조” 적용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 전담팀 운영과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도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 방안만으로는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사고 관련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남아 있는 만큼 결국 수사 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교사가 여전히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며 “고의가 없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288조의 업무상과실처사신조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역할극 기반 갑질예방 교육… 전북교육청,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

법령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 역할극으로 구성 도내 5개 교육지원청서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역할극 기반 맞춤형 갑질 인식개선 교육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분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직속기관장, 부서장, 장학관 5급 이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역지사지 역할극 기반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교육청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갑질 예방지도’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현장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갑질 예방지도는 기관과 학교 현장의 갑질 경험 수준과 조직문화 특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지역·기관별 위험 요인과 취약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예방관리 지원 도구다.

전북교육청은 예방지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개선지구와 자율개선지구를 지정해 지역별 예방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역지사지’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인 법령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상황을 역할극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참석자들은 관리자과 직원의 역할을 바꿔 맡아 다양한 갈등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이날 분청 및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6월 15일 일실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분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직속기관장, 부서장, 장학관 5급 이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역지사지 역할극 기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6월 17일 남원교육지원청 △6월 23일 전주교육지원청 △6월 25일 군산교육지원청 △6월 26일 김제교육지원청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갑질 근절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을 추진한 뒤 오는 11~12월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효과와 조직문화 변화를 점검할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직문화는 관리자 한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관리자들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할 때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 개선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학생 도박중독 대응 강화

전북교육청, 대전서 도박예방 선도교사 양성과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30일 대전 에듀인재교육센터에서 ‘2026년 도박예방 선도교사 양성과정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박예방 선도교사로 선정된 도내 교사 20명이 참여했다.

해당 연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위탁해 운영됐으며,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도박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비중이 높지만,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선도교사 양성을 통해 학교 도박예방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수는 총 1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이해와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도박과 재정문제 △도박 문제 현황 및 이해 △회복 사례 공유 △도박중독 치료 실제 △도박 문제 선별 및 의뢰 △예방교육 방안 및 콘텐츠 활용 등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진로·학업 설계 지도·상담역량 강화 기본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우석대학교에서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지도 및 상담 역량 강화 기본 연수’를 운영했다.

연수는 △단위교육 진로·학업 상담 시스템 내실화 △사례·실습 중심의 실제적 역량 강화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문성 신장 등을 기본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현장 교원과 외부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오상근 기자

‘하이브리드 영어 수업’ 사례 공유

전북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원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에듀테크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중등 영어교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치명자산 성지 평화전당에서 도내 중등 영어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등 영어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AI) 코스웨어와 각종 디지털 앱, 학습지 및 협력 활동 등 아날로그 수업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영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행사는 양현고등학교 오진희 수석교사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 코스웨어 활용 영어 수업-평가 연계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실제 수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주요 사례로는 △노트북(NL)을 활용한 ‘나의 수업 루틴, 학습지로 말하다’ △다양한 앱을 활용한 ‘비로 활용하는 가성비 수업 활동 팁’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워터민 보조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세계를 교실로 프로젝트 BTS’ 운영 사례와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 미시도에 따른 학교별 평가 규정 개정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오상근 기자